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해력 교육의 쟁점과 도전”에 대한 토론문

최영인¹

서울교육대학교^{1*}

yichoi@snue.ac.kr^{1*}

교육 혹은 교육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일원으로서 외면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문제 중 하나가 '교육 격차'와 '학력 저하'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진단과 문제제기는 코로나 이전부터 무성했지만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20년 이래 전 세계는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의 상황을 갑작스럽게 겪게 되었고 또 그 재난이 장기화되면서, 개인 혹은 사회는 우리 안에 내재해 있던 취약점을 여실히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문에 제시된 것처럼 팬데믹이 기존의 문해력 격차 및 문해력 저하 문제를 증폭시켰을 뿐 그 문제를 새롭게 양산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사회 및 학문공동체는 팬데믹으로 인해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할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발표자께서 현안1에서 제기한 표면적인 문제는 '문해력 격차'이지만, 그 이면에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온 학습자 전반의 '문해력 저하' 문제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문해력 수준에서 상위 성취수준 집단군에 비해 하위 성취수준 집단군의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학습자의 평균 문해력의 저하가 나타난다고 본다면, 사실상 하위 집단군에 대한 적극적인 처방 혹은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 문해력 수준에 따른 맞춤형 수업의 제공'이라는 대명제에 기반한 교육 정책이나 제도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이러한 대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학교 현장 혹은 교육 참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기초 문해력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문해력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 대한 지도는 교사들에게 여전히 어렵고 막막한 것이며, 지도 대상이 되는 학습자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혹은 실효성 낮은 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생각하고 계신 '기초 문해력'을 습득하지 못한 학습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의 실행 방안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더 청해 듣고 싶습니다.

기초 문해력 교육을 강조하다 보면, 학교는 어떤 기능인을 길러내기 위한 양성소가 되곤 합니다. 문해력 격차 문제에서, 학습자 혹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학교는 특정한 계층이나 문화를 가진 집단에 더 유리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가 학습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재생산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배적인 영향이나 권위를 비판하고 저항하는 힘을 길러 우리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곳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학교 본연의 기능에 대한 시각을 달리한다면, 하위 수준 문해력을 가진 학습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관점에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라는 공간이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터러시 학습의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한 '메타 담화 학습'에 대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박사과정에 진학한 후 국어교육 내의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접하면서, 하위 영역별로 논문 쓰는 스타일에서 꽤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어렵듯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른 교과 교육 전공자, 혹은 교육 분야가 아닌 타 분야 전문가들과 공동 작업을 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논문 혹은 보고서 쓰기와 관련해서 영역별, 분야별 관습이 상이하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영역, 분야별 논문 쓰기 관습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술적 텍스트에 대한 공통 요구 사항, 일반적 관습'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의 연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 연구자들과 연구 결과를 보고할 때 '학술적 텍스트에 대한 공통적 관습이나 기대' 충족을 최소 필수 조건으로 추구하되, 투고하는 학술지의 관습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선택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 전략적 적응(adaption)을 시도하곤 합니다. 저의 이런 경험과 관련하여, 학술적 텍스트에 대한 공통 요구 사항, 일반적 관습이 발표자의 '융복합 문식성'의 한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고 한다면, 다시 몇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국어교육에서 다를 것은 국어과 영역 학습인가? 융복합 문식성을 향상하기 위한 학습인가? 둘 다라면, 국어교육 내에서 두 가지 학습은 어떤 순서, 관계로 진행될까? ('국어교과'의 성취기준 외에 '범교과 성취기준' 등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안 등)

-교과 통합적 문해력 교육에서 여러 영역 교육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그 교집합의 실체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규명될 수 있는가?

-그 교집합 영역에 해당하는 문식성을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인데, '교과 통합적 문해력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선행 조건, 혹은 그 실천을 위해 해결해야 할 현실적 장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토론자로서, 되도록 꼼꼼하고 정확하게, 천천히 생각하며 읽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제가 가진 평소의 관심사와 관련하여 특정 부분에 지나치게 몰입하기도 하였고 또 배경지식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사고의 연결이 촘촘하지 못해 성급하게 추론하거나 오독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론을 마칩니다.